

제1강 전도의 열정 가득한 현대교회

누가복음 24:46~48

전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주님의 거룩한 명령이다.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전도를 어려워하고 있다. 해도 안 된다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 할 수도 없는 것이 전도이다. 전도를 포기하는 것은 주님께서 위임하신 '지상 명령'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교회 존립의 문제이다.

전도가 어려운 까닭은 오늘날 시대적인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다.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신앙의 여건이 훨씬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꽃을 활짝 피웠다. 그렇다면 오늘날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잘 실천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 때문일까?

이번 임원세미나는 전도에 중점을 맞추어서 진행하려 한다. 오늘날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전도를 원점으로 되돌려서 전도의 본질과 성경적 원리, 그리고 신학과 실천에 비추어 다시 한 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무너졌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고, 그 바탕위에 전도를 다시 세워서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불태우기 원한다.

그리하여 올 한해, 전도를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바란다.

1. 복음전도란 무엇인가?

주님의 지상명령인 전도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없다. 그러나 전도를 강조하고 있는 교회와 현장에서 전도를 실행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전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정확한 의미규정이 없이는 그 의미에 걸 맞는 효율적인 실천이 따를 수 없고, 실천적인 평가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도에 대한 실천적인 행동의 전제조건은 성서적, 신학적 개념규정이어야 한다.

1) 복음전도는 기독교의 도(道)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傳道)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풀면 '도(道)를 전(傳)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하는 전도는 “기독교의 도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도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에서 광범위 하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예를 들면 야구 전도사 이승엽, 성(性)전도사 구성애 등이다.

이렇듯 전도사는 말은 기독교의 영역 외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정체성을 담은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

기독교의 도는 복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도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라는 표현보다 복음전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 福音傳道라는 말을 가장 먼저 사용한 사람은 찰스 아담스인데, 그의 책 '복음전도사역의 원리와 실제'에서 사용하였으며, 이후 복음주의적인 문헌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2) 인도를 복음전도의 의미로 강조할 때 일어나는 일들

복음전도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와는 그 의미가 다르다. 인도란, 사람을 교회로 안내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는 일에 기여한다. 따라서 이것은 일회적인 사건에 그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전도는 한번 하고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피 전도자가 영적으로 성숙해 질 때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할 지상의 과제이다.

2. 복음전도의 성경적 의미

신약성경에 전도와 관련된 용어는 수 없이 많이(40여 단어로 표현됨) 나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로 사용된 단어는 유앙겔리온, 케류소, 마르투레오이다.

1) 케류소

케류소는 선포하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이다. 여기에서 선포의 핵심은 '기쁜 소식'이다. 따라서 케류소라는 단어가 사용된 구절들은 전도의 본질적인 의미인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즉 이 단어가 사용될 때 선포되는 내용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케류소는 복음전도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2) 마르투레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자신이 보고, 경험한 내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증거하는 행위이다.

누가복음 24:46~48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 삼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구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과 예수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었으며, 예루살렘을 비롯한 많은 나라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

3) 유양겔리온

유양겔리온은 유(좋은)와 양겔리온(메시지를 전하다, 선포하다, 광고하다)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인 복음을 의미하고, 동사로 쓰일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사람을 지칭할 때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즉 전도자로 사용된다.

특히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의 유양겔리테스는 신약에서 세 번 사용되었는데(행 21:8, 엡 4:11, 딤후 4:5), 모두 전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유양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시대에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나팔소리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전쟁터에서 모든 군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나팔소리가 들려온다면 얼마나 기뻐했는가? 이런 소식이라면 누가 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앞을 다투어 전할 것이다.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앞다투어 전해야 한다.

이상의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 보면 복음전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① 케류소 :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 ② 마르τυ레오 : 제자들이 경험하고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것
- ③ 유양겔리온 :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4) 복음전도의 성경적 의미의 실제적 적용

복음전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면, 바로 여기에서 전도자가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행동해야 할 이유가 생겨난다. 전도는 오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교회로 데려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가장 기뻐할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① 복음을 경험하였는가?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전하게 된다. 그 집에서 나를 홍보대사로 임명한 것도 아닌데, 그 음식점을 소개하는 것은 내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경험했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복음전도도 이와 같다.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인 것이다.

나dana엘을 예수님계로 인도할 때 빌립은 “와 보라”고 하였다. 빌립은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나dana엘에게 자신 있게 소개한 것이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계로 데려온 방식이 “와 보라”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전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것은 기쁜 소식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경험을 해 본지가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경험이나 감격이 없이 이론만을 전하려 하니까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이다.

② 복음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경험해야 한다. 이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쁜 소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꺾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즉 기쁜 소식(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사건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 인간이 모든 문제는 죄로 부터 기인하고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아 믿고, 받아들일 때, 죄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싸울 필요가 없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 볼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라는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힘들고 답답할 뿐이며, 날마다 자신과 싸우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③ 사도바울의 로마서 경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요 14:2~3) 천국의 소망으로 눈을 감을 수 있게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되며,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도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이 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은 맛 본 사람만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 있으며, 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전도이다.

3. 로잔 선언문에 담긴 복음전도의 의미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통치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사함과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 속해 있어야 하며(현존),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마음의 기울여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도 자체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선포하여(선포),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것이다(설득). 이것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화국제대회의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1) 로잔선언문에 담겨있는 전도의 핵심적 요소

로잔선언문 가운데 전도의 본질에 관한 내용은 제4항에 기록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퍼뜨리는 것인데 기쁜 소식이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시어 통치하시는 주로서 그는 지금도 회개하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죄와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은사를 공급하신다는 것이다.

전도에 있어서 세계 속의 그리스도인의 현존은 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이해하기 위하여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화도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전도 그 자체는 역사적 성서적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로서 선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도록 설득하는 일이다. 복음의 초대를 함에 있어 우리 예수께서는 오늘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새 공동체에 속하였음을 분명히 하도록 부르신다. 전도의 결과는 그리스도께의 순종, 그의 교회와의 협력, 세상 안에서의 책임 있는 봉사를 포함한다.

① 현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에서 구원의 영향력을 주변 세상에 드리내며 살아야 한

다. 그것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함께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 세상은 그 삶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룻기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리스도인들 주변으로 모여들게 된다. 또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벧전 3:15), 좋은 관계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존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할 중요한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때로 현존은 어떤 사람들에게 핑계 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나는 삶으로 전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전도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복음전도는 현존으로서의 삶을 넘어서서 선포의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② 선포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감동하고 도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피전도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고, 그리하여 그가 그 사실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므로 복음 선포는 복음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로잔선언이 있기 이전의 복음주의자들은 주로 이 부분에 치중했다. 선포만이 복음전도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로잔대회에서의 반성과 새로운 연구를 통해서 포괄적인 복음전도에 대한 반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선포의 중요성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복음 선포는 복음전도의 심장이다.

③ 설득

전도자는 피전도자에게 복음을 전한 후 피전도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해야 한다. 복음전도는 선포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도자가 전한 복음이 진정 능력이 있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들은 피전도자가 그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결단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 온전한 복음전도는 피전도자가 복음을 듣고 스스로 결단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복음을 들은 직후이다. 만약 이 시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십중팔구는 면역이 생겨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복음을 선포한 전도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신앙공동체를 소개해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로잔선언의 실제적 적용

세 가지 차원의 복음전도 개념을 실제와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존으로서의 전도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의 바탕이 되어 세상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단계이다. 관계의 형성이 없이 일방적으로 전하는 복음전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그리고 삶의 영향력이 뛰어날수록 피전도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현존적 삶은 효과적인 복음전도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② 선포로서의 전도

전도의 핵심은 말, 즉 선포로서의 전도이다. 이것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다. 선포가 없이는 회심은 일어날 수 없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자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자신이 전달하는 복음의 내용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설득으로서의 전도

복음전도의 마무리 단계로, 피전도자는 복음을 들은 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설득해야 한다. 복음을 전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피전도자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요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전도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법과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 나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복음전도가 마무리 되는 것이다.

4. 전도의 영적 의미

1) 복음전도는 피 전도자의 영적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복음전도는 '기독교의 도'라고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여 영적 주인을 바꾸어 놓는 일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전도는 영적인 출산행위인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들은 한 번의 전도가 피전도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전까지 피전도자는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사탄에게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삶의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이 바로 전도의 순간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탄이 복음전도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추론할 수 있다.

2) 전도는 단순히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 최전방에서 싸우는 영적전투이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따라서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는 일은 영적인 전투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일들이고, 그것을 행할 때 사탄은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다면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분이 원하시는 일과 명령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영적으로 이탈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여 힘을 잃게 하며, 쓰러뜨리려고 애쓴다. 이처럼 복음전도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인 것이다.

복음전도가 영적인 전투라면 이 전투는 최전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최전방은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이다. 사탄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의 호적을 파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사탄의 역역을 축소하는 일이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복음전도를 방해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3) 영적 전도는 새 생명을 낳는 일이다.

피전도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때 그의 영적 나이는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갓 태어난 아기와 같다. 즉 복음전도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결단의 시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하는 출발점인 것이다.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복음전도가 영적 출산이라면 전도의 과정이 태교의 과정과 같아야 한다. 가장 멋지고 예쁜 신앙의 사람을 출산하기 위하여 영적태교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태교의 과정 중에 있는 피전도자를 태신자라고 한다. 잉태한 이가가 건강하게 자라서 잘 태어나도록 하기위해서 임산부가 모든 것을 조심하듯이 전도자는 피전도자(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매사에 건강한 신앙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마치 산모가 태아와 대화하듯이 피전도자와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일이 중요하다. 이러한 태도로 피전도자에게 사랑과 관심을 투자를 할 때,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돈이 아닌 헌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복음전도의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4) 영적 고아를 만들지 마라.

전도가 영적출산이라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면 안 된다. 피전도자가 교회에 출석한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그런데 영적고아

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전도자의 결심이 복음전도 과정의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는 것의 목적은 낳는 출산의 기쁨을 누리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키워 성장시키기 위함인듯이 영적출산도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돌보는 일이 중요하다. 그런데 전도자가 피전도자의 결심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성장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영적 고아가 될 수 있다. 영적 고아의 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이후 그 사람 안에서 왜곡된 신앙생활(예배, 기도, 봉사, 헌신 등)에 면역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출산이 끝난 후에는 모든 사명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그 사람을 잘 키워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을 가지고 성장시켜야 한다. 이 일을 혼자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속회나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른 성도, 또는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해야 한다.

5. 나가는 말

1) 전도의 결과로서의 교회부흥은 복음전도의 일부분이다.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될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부흥한 교회였다. 그러나 복음전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교회 성장 외에도 많다. 즉 전도자들이 전도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은 교회는 든든하게 한다.

또 복음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한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온전한 통로는 십자가의 복음뿐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활기가 넘친다. 이것이 생명의 증거인 것이다.

2) 주님의 지상명령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전도자들은 주님이 지상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가복음에 나타난 지상명령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주셨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이 복음전도의 일차적인 사명이다. 그것은 로마서 10:14~15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설령 복음을 전했는데도 상대방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꺼려했더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마음에 남아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그의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때로 주변의 교회들이 충동원주일 등을 통해서 전도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복음전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건강한 열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교회성장에 집착한 이벤트는 건강한 잉태와 출산, 그리고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전도의 본질을 잃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

3) 영혼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자.

전도의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한 전도자에게는 전도가 전하는 데만 그쳤든지, 아니면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까지 이르렀든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도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신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아름답게 부흥될 것이다.